

보도시점 2024. 2. 28.(수) 조간
2024. 2. 27.(화) 12:00

배포 2024. 2. 27.(화)

고립·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중장년이라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과 상관없이 청년, 중장년이 받을 수 있는 ‘일상돌봄 서비스’,
51개 시·군·구 → 179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 -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도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
-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에게 돌봄·식사·심리지원 등 제공 -

<요약본>

올해부터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이 51개 시·군·구에서 179개 시·군·구로 크게 늘어난다. 서비스 대상도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서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층’으로 확대된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장년과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가 돌봄서비스와 식사지원, 심리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다.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전국 51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의 179개 시·군·구로 제공 지역이 크게 늘어나, 보다 많은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난해에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영케어러)’만이 서비스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포함)도 대상이 되어,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부터 중장년(19~64세)까지를 포괄하게 되었다. 서비스 제공 시기는 지역마다 다르며, 이르면 3월부터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역별 누리집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아프거나 혼자 생활하기 힘들 때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청·중장년분들께 일상돌봄 서비스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하며 “향후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면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사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9세)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시행 지역이 작년 51개 시군구에서 올해 179개 시군구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 대상도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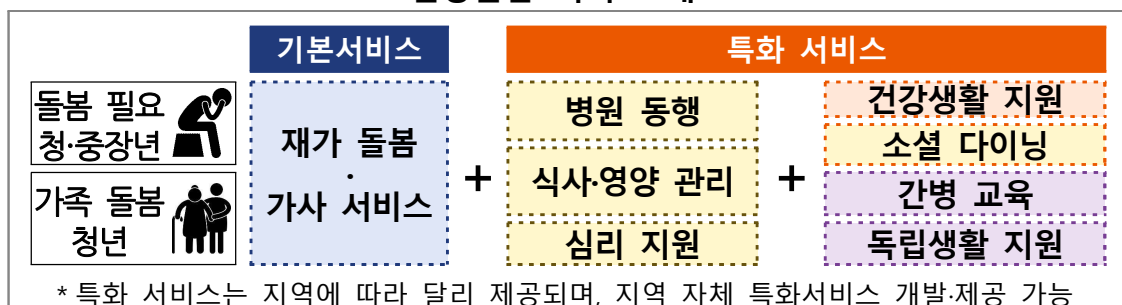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청·중장년(만 19~64세),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소위 영케어러, 청소년 포함, 만 13~39세)에게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다.

* (주요 사업대상) 질병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중장년, 고독사 위험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 대상자의 연령 등 세부기준은 지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사업지역이 ❶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❷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 일상돌봄 서비스 개요 >



❶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은행, 장보기 등)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용자 상황에 따라 최대 월 72시간을 제공한다.

❷특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식사 지원,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된다.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르며, 이용자는 거주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 서비스 제공 지역이 크게 늘어나고, 서비스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지난해 하반기 전국 51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의 179개 시·군·구로 제공 지역이 크게 늘어난다. '24년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지역은 아래와 같다.

<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지역 >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서울	성동구, 성북구, 서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동구	강원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영월군, 화천군
부산	전체 시군구	충북	청주시, 옥천군, 진천군, 괴산군
대구	전체 시군구	충남	전체 시군구
인천	전체 시군구(옹진군 제외)	전북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광주	전체 시군구	전남	전체 시군구
대전	전체 시군구	경북	전체 시군구(울릉군 제외)
울산	전체 시군구	경남	전체 시군구
세종	전체 시군구	제주	전체 시군구
경기	전체 시군구(가평군, 과천시, 양평군, 연천군 제외)	-	-

또한 지난해에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만 서비스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포함)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로써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19~64세) 모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권(전자바우처)을 발급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아프거나 혼자 생활하기 힘들 때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청·중장년분들께 일상돌봄 서비스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하며 “향후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면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사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 <붙임> 1. 2024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포스터 및 광고 화면
2. 2024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개요

담당 부서	사회서비스정책관실 사회서비스사업과	책임자	과 장	권민정 (044-202-3220)
		담당자	사무관	신하늘 (044-202-3224)

① 홍보 포스터

일상돌봄 서비스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에게
재가돌봄·가사, 병원동행,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① 질병,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 ②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13~39세)

* 다량지 신청(종전 지역내에서보다 구체화하거나) 사업 취지 취지를 전제로 일부 반영하여 선정 가능
* 출생년도 기준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및 문의

서비스 내용

재가돌봄가사와 함께 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운동 지원,
소셜 다이닝, 교류중진, 간병교육, 독립생활 지원 등

* 지역별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를 수 있음

제공지역

서울 성동구, 성북구, 서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동구 / 부산 전체 시군구 / 대구 전체 시군구
인천 동진구 제외 전체 시군구 / 광주 전체 시군구 / 대전 전체 시군구 / 울산 전체 시군구 / 세종
경기 경기 가평군, 과천시, 양평군, 연천군 제외 전체 시군구 / 강원 강원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양양군, 화천군
충북 청주시, 옥천군, 진천군, 괴산군 / 충남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남원시, 강제시, 홍주군
전남 전체 시군구 / 경북 울릉군 제외 전체 시군구 / 경남 전체 시군구 / 제주 전체 시군구

② 일상돌봄 서비스 캠페인 영상 “우리 집에 돌봄이 온다”(중장년편)

* 보건복지부 유튜브(보건복지부 TV)에서 영상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bhdOGK80>)



붙임 2

2024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개요

- (개요)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①청·중장년(질병, 고립 등),
②가족돌봄청년에게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
- (서비스) 재가 돌봄·가사와 함께 심리 지원, 간병교육,
병원 동행, 교류 증진 등 서비스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
- (이용방식)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기본서비스(12, 24, 36, 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이용 가능하며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해 선택권 보장

< 서비스 이용 유형 >

구분		기본 서비스 (재가돌봄·가사)	특화 서비스
돌봄+ 가사	A형 (기본돌봄형)	월 36시간	1개 이용
	C형 (추가돌봄형)	월 72시간	-
가사만	B-1형 (기본가사형)	월 12시간	2개 이용
	B-2형 (추가가사형)	월 24시간	2개 이용
특화만	D형 (특화형)	-	2개 이용

- 소득 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대상자를 정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 부담을 내고 이용
- (서비스 가격) 기본서비스월 216,000원 ~ 1,296,000원(이용시간에 따라 다름)
특화서비스월 120,000원 ~ 257,000원(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름)
 -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부담

< 일상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 비율 >

기준 중위소득	기본 서비스	특화 서비스
기초수급자, 차상위	면 제	5%
120% 이하	10%	20%
120~160%	20%	30%
160% 초과	100%	100%

□ (서비스 종류)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와 특화서비스로 구성

- (기본서비스)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재가 돌봄·가사 등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

< 기본서비스의 주요 내용 >

구분	서비스 내용
재가 돌봄	세면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등
가사 지원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동행 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 (특화서비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지원, 운동,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회복하기 위한 서비스

< 특화 서비스의 내용 (표준모델) >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병원 동행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의 병원 이동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심리 지원 서비스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휴식 지원 서비스	단기 시설보호 지원
소셜 다이닝 서비스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 돌봄필요 중장년 대상 특화서비스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프로그램 제공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 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 돌봄필요 청년과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청년의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
간병 교육 서비스	간병·돌봄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제공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지역별로 추가 개발 가능, 제공하는 특화서비스는 지역마다 다름